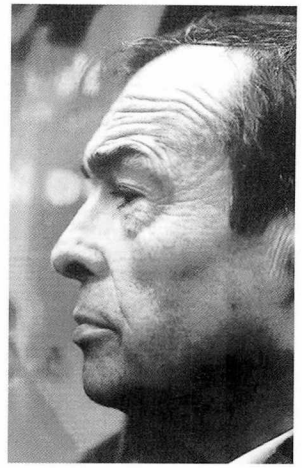


텔레비전은 지배블록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부르디외의 텔레비전론

홍성민 | 동아대 정외과 교수



1996년 말 프랑스에서 출간된 피에르 부르디외의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대단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쟁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뜨거웠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제4부의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 언론매체의 역할을 감안해볼 때, 이런 언론매체 가운데 특히 텔레비전이 정치여론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기보다는 그 어떤 사회기관보다 자기도취적이라는 부르디외의 비판이 세인의 주목과 논쟁을 초래하게 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논쟁의 열기 속에 휘말린 채 오늘날 텔레비전의 기능에 대해 찬성인가 혹은 반대인가를 묻는다면, 이것은 부르디외가 이 책 속에서 문화생산의 사악한 효과라고 명명한 저널리즘의 논리 속에 매몰당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견제’ 보다는 ‘유포’ 하는 권력 재생산의 장

부르디외에 따르면,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저널리즘의 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적 장에 대한 대단

히 특유한 시각을 생산하고 부과하는지” 보여주려고 한 책으로, 이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저널리즘의 장’ 구조 안에,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저널리스트들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통해 언론의 장과 정치의 장의 상호역학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작업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르디외의 사회학의 이론적 지평과 철학적 깊이에 대한 사전답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 이론, 계급 아비투스, 상징적 지배에 대한 개념적 활용의 의미를 짚어봐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문제의식을 우리 현실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보는 것으로 부르디외의 학문적 의도를 점검해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신문이나 방송에서 정치담당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사건의 보도나 시사토론을 구성하면서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정당한 정치영역의 범위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미디어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사를 걸러내는 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언론의 장을 관장하는 지배블록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게 된다. 하버마스가 기대했던 ‘공공영역’이란 이제 허울뿐인 영역이 됐고, 거대한 기업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언론의 장은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시민 개개인들을 능동적 참여자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장이 공공영역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비리는 시장점유 경쟁의 메커니즘 탓이며, 이로 인해 방송이나 언론이 제시하는 사건기사와 해설기사는 소위 ‘들고 도는 방식’에 의해 생산되므로 언론사간의 차별성은 사라지고, 모든 정보나 의견이 균등화되는 양상으로 빠지고 만다. 더구나 한국의 언론사 기자들은 비슷한 학력과 출신배경 등을 갖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도 친밀한 교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사실로 인해 언론의 장은 대단히 폐쇄적인 회로에 갇히게 되며, 이로 인해 정치의 장을 견제하는 역할보다는 정치적 장이 만들어낸 통념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에 머물고 마는 경우가 많다.

특정 세계관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

또한 시사프로그램에 출현해 한국 정치의 병리적 현상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지식인들의 역할은 정치의

장과 언론의 장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토론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손님’들의 언어적 한계를 지적해보자. 그들은 세계를 해석하는 일방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임에도 그들이 시사토론에서 말하는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들의 전문가적 식견은 일반 대중이 현실정치에 대한 일정한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그런데 토론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에 대한 입장과 해석이 자기 강화의 논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부르디외의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저널리즘, 나아가 공론장(public sphere)의 사회적 조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

홍성민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10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포스트 모던의 국제정치학》《문화와 아비투스: 부르디외와 유럽정치사상》등을 펴냈다.